장성군 "꽃과 정원 어우러진 장성 황룡강으로 오세요"

황룡강 대표 '황룡정원', '홍담정원' 등 가을 정취 물씬… 18~26일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개최

'가을 여행 명소' 장성군에 조성된 황룡강 주제정원이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부상 중이다.

장성군은 2023년부터 '지방정원 조성공사'를 통해 총 6개의 주제정원을 황룡강 일원에 만들고 있다. 전통적인 오방색에서 착안해 주제 색을 정하고 구간별로 △황룡정원(황) △홍담정원(적) △청백리정원(백) △푸른물빛정원(청) △검은숲정원(흑)을 조성 중이다. 여기에 지난 5월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때 조성된 작가정원·초청정원·시민참여정원을 보존한 '참여정원'이 더해졌다.

가장 많은 발길이 모여드는 곳은 '황룡정원'이다. 옛 공설운동장 부지에 장성 잔디를 심고, 강변 쪽에는 음악 분수와 상설 무대를 설치했다. 무대를 바라보며 앉을 수 있도록 부채꼴 모양으로 계단을 만들고, 단차를 둬 공연을 관람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정원 외곽을 포근하게 감싸는 소나무와 은목서가 경관의 완성도를 높인다. 황룡강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매년 봄·가을 축제 주무대가 마련되는 장소다.

'황룡정원'이 방문객들로 사랑받는 이유는 '자유로움'에 있다. 어디서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축제를 즐기거나 가족들과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햇볕이 부담스럽다면 나무 그늘 쪽에 자리를 잡으면 된다. 주차장, 도롯가와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 저녁녘에는 석양을 바라보며 음악 분수와 야경을 감상하기에도 좋다.

서삼교와 문화대교 사이에 조성된 '홍담정원'은 애기단풍 물든 백양사의 가을 풍경을 담았다. 붉은색을 주제로 홍가시나무, 매자나무, 영산홍, 배롱나무 등이 다소곳이 자리잡고 있다. 개화 시기가 지난 점은 아쉽지만, 정원 한편에는 붉은 장미도 식재되어 있다. 정원 사이에 난 길을 따라 여유롭게 걸으며 철새 소리, 풀벌레 소리, 강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까지 정화되는 느낌이다.

장성제1교 옆 '청백리정원'은 장성이 배출한 조선시대 청백리 아곡 박수량 선생(1491~1554)의 백비(白碑)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잔디와 흰 돌로 원 모양을 그리며 디자인한 정원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정원 중심부에는 흙길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이 있어 황룡강 풍경을 내려다볼 수도 있다. 매점과 주차장, 화장실과도 가깝고 강 건너 연꽃정원으로 이동하기에 좋다.

검은색 수종의 식물로 꾸며질 '검은숲정원'과 연꽃, 초화류로 자연의 멋을 드러낼 '푸른물빛정원'은 2026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장성/황해연 기자

보성군, 매년 새로운 향토문화유산 발굴!

2025년 보성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거쳐 12건 등재 추진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2025년 2월부터 추진한 '향토문화유산 발굴사업'을 통해 지역 곳곳에 숨겨져 있던 문화유산 12건을 새롭게 발굴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 24건의 대상이 접수돼 전문가 현지 조사와 평가,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보성 거연정, ▲보성 석호정, ▲보성 밀양 손씨 효자 정려, ▲보성 오봉리 광주 이씨 재실, ▲보성 정응남 고문서 일괄, ▲보성 정홍수 고문서 일괄, ▲보성 충헌사 전적 일괄, ▲보성 옥암리 옥정고택, ▲보성 구 청학정, ▲보성 반석리 채씨고택, ▲보성 안규홍 전적 일괄, ▲벌교읍 대포리 당제와 갯귀신제 총 12건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등재된 유산은 건축물 7건, 전적·고문서 4건, 무형유산 1건으로 구성돼, 유형과 무형을 아우르는 종합적 향토문화유산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특히, 군은 2017년 12건, 2024년 10건에 이어 2025년 12건이 추가 지정된다면, 보성 지역이 지닌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이 여전히 잠재돼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군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 전, 보성군 누리집을 통해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정 예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군민이나 관련자는 지정 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보성군청 문화관광실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군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 10월 중 각 유산의 지정서를 공식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지정 후에도 소유자 및 관리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존관리·홍보·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군민 참여형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정이 보류된 유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존 관리를 통해 향후 등재 가능성을 열어둘 계획"이라며 "향토문화유산 발굴과 등재가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가 된다는 책임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가을밤 수놓을 "제10회 오맥축제 오라!구례" 개최

지역상인·청년점포·예술인이 함께하는 구례 대표 야간 축제

전남 구례군은 오는 10월 18일(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구례읍 5일시장 상설무대 일원에서 「제10회 오맥축제 오라! 구례, 구례에서 즐기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맥축제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생 및 체류형 야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시작되어 10회를 맞이했다.

이번 축제는 '오늘 쓰는 소비쿠폰, 내일 웃는 지역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상인회와 청년점포, 주민협의체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가을밤의 상생축제로 운영된다.

행사는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노고단앙상블의 색소폰 연주를 비롯해 초청가수 고도영, 서진, 별하, 여신 등의 공연, 문화싸롱의 대중 가요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을밤의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500원에 500cc 생맥주 1잔을 제공하며, 1인당 최대 4잔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환권(쿠폰) 제도를 운영해 건전하고 안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청년점포와 주민점포가 참여해 튀김, 부추전, 닭강정, 떡볶이, 치킨 등 다양한 먹거리와 수제빵, 공예품 등의 특색 있는 상품을 함께 판매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가을밤 구례 5일시장에서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고, 음악과 웃음이 함께 흐르는 오맥축제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따뜻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담양군, "가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쯔쯔가무시증·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당부

담양군은 가을철 농작업이나 등산 등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진드기에 물리면서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이 많다.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산나물 채취·텃밭 가꾸기·등산 등 야외활동 시 풀밭에 직접 앉지 말고, 긴팔과 긴바지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활동 후에는 입은 옷을 세탁하고 바로 샤워하는 것이 좋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구토·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 사실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옥 기자

진도군,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존관리비 지급 완료

진도군은 천연기념물 진도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양육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도개 보존관리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진도개 보존관리비는 진도개의 혈통을 유지하고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며, 양육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된 모든 진도개에게 지급됐다. 군은 그동안 우수 혈통의 수캐와 노령견을 중심으로 보호료를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등록된 모든 진도개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존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진도개 양육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천연기념물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동시에 균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천연기념물 진도개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세계적인 명견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무안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기관 선정

'지역청년 지원' 분야 성과 인정받아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청년 지원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시책을 공유·확산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정책 경연대회이다. 군은 청년의 자립·정착을 위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무안읍과 남악신도시의 특성을 살린 청년센터·청년플랫폼 이원화 운영 △청년도전지원사업, 창업활동비 지원, 청년상가 운영 등 청년 구직 및 창업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보금자리 사업지구 선정 등 지역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위한 종합적 지원 정책을 펼친 점이 주효했다.

김산 군수는 "앞으로도 청년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무안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